



서중신문

2021-17호

- 편집장 : 김가은
- 편집위원 : 김 단, 이은경, 김태규
- 지도교사 : 정 혁
- 발행인 : 김두용
- 발행일 : 2021. 12. 20

우)5634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사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교장 선생님 인터뷰



Q. 교장 선생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A. 나의 인생관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즐기며 살자야. 지금 인터뷰를 할 때는 인터뷰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즐기면서 하자. 물론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교감, 교장 9년째를 하면서도 학교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즐기면서 하자. 이게 아마 내 인생관일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

교육 가치관은 내가 매일 변산서중 학생들한테 '변산서중 3년간은 내 꿈이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운지, 그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은 후 고등학교 때 디자인해서 대학교 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교육 가치관이야.

Q. 교직에 있으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해요.

A. 교사 개인으로서의 보람은 내가 평교사에서 시작해서 순서를 차곡차곡 밟아 교장까지 올라온 것. 교장 올라와서도 내 교육 철학에 따라서 학교를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시킨 것. 또 청와대 가서 대통령 영빈관에서 대통령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고, 사립학교교로서는 쉽지 않는데 교육부 장관상 이런 것들 받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보람이야. 가장 큰 보람은 졸업한 지 30년 된 우리 제자들이 계속 찾아와주고, 같이 만나서 추억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많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결혼식 주례도 내가 총 15번 봤는데 그중에서 우리 중학교 제자들을 14번 볼 정도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좋고, 애들이 계속 찾아와주고 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이지 않나 싶어.

Q. 내년에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변산서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A.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선후배 간의 문제라든지 친구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학교, 너희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 욕심으로 읍내라든지 이런 학교 나가기보다는, 내 지역에 있는 따뜻한 변산서중 다니면서 내 꿈을 찾고 상급학교에 대한 디자인을 실현하는 과정이 매우 아름다운 교육과정일 것 같아서 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꼭 변산서중학교에 진학해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



학생회장 김하은 인터뷰



Q. 학교 장점

A. 변산서중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좋고 편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때부터 봐온 친구들이 많고 아니더라도 많지 않은 학생수 덕분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편하게 대할 수 있다.

Q. 학생회장 소감

A. 학생회장을 하게 되어 나의 중학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의미 있는 삼학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회장을 하면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Contents

2 + 우리학교는요

- 미래를 위한 교육! STEAM 교육
- 함께 성장하는 학교, 변산서중학교
-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활동
- 우리 교장 알아가기

3 + 학교 활동

- 재미와 감동의 조합(서연축제)
- 책임는 습관의 시작
- 기쁨을 주는 소원나무

4 + 체험 활동

- 코딩을 신나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AI 체험
- 온라인 코딩파티로 우리 모두 코딩 마스터
- 클래스 있는 클래식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 무주태권도원에서 나의 꿈을 찾자!
- 직업 체험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진로

5 + 동아리 활동

- 4H -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그대에게
- 가온누리
- 방송부 - 〈오후의 희망음악〉과 함께
- 과학발전소 - '그'와 함께하는 과학
- 농구동아리 TOP-10 - 너와 내가 모이면 탑텐

6 + 학부모 교육

-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학습, 책가방
- 두드림으로 dream을 실현하다
- 〈말랑한 벽〉의 송태규 시인을 만나다.
- 달콤한 레시피 '사랑빵'
- 학부모회 마실길 동아리 〈두벽이〉

7 + 학생 자치회

-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 리더로서 리드하라!
- 보다 보람 있는 독서, 독서 골든벨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자치회

8 + 자랑스러운 서중인

- 술섬에 가면
- 교장선생님 인사말
- 2021학년도 겨울방학 학생생활 안내

미래를 위한 교육! STEAM 교육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미술(Art), 수학(Mathematics)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미술(Art), 수학(Mathematics)의 각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변산서중학교는 STEAM 선도학교로써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에 steam day를 진행했다. steam day는 변산초 학생들과 격포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실에서 진행되었으며, '3D펜 무한상상', '풍력 하우스 만들기' 외에 여러 체험 활동 부스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여러 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학 체험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 부스 외에도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주며 팝콘과 외판을 만들어 주는 부스도 있어 초등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팝콘 부스 체험을 진행한 3학년 정성영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와 상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인지 활동 내용이 더욱 선명히 기억에 남았다. 한편 이벤트 부스가 있어 어린 친구들의 관심도가 증가해 이벤트를 기획한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다만 코로나 19로 교내 취식이 불가능해 올해 준비한 이벤트를 완벽히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변산서중학교에서 STEAM 선도학교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계속 힘써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학생기자 강한별

함께 성장하는 학교, 변산서중학교 (어울림 학교)

어울림 학교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민주적 자치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인성, 지성, 사회성을 길러주고, 교육과정의 창조적 재구성을 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어울림 학교라 지칭한다. 변산서중학교는 초·중등학교 연계형 중심학교로 변산·격포 초등학교와 서로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울림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그중 변산서중학교 3학년 학생 곽경혜, 김규리, 김태규, 정성영은 2021년 11월 18일 2~4교시 동안 변산초등학교에 방문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중 학생들은 변산초등학교에 방문하기 전 사전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한 후 발표 수업에 대비한 PPT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활동은 어울림 학교 관련 프로젝트라는 큰 틀 안에서 학생들에게 삼국시대 때의 문화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주자는 취지에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자 설명 내용 관련 퀴즈를 제공하였고, 모형 만들기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였다.

이 수업 활동에 참여한 변산초등학교 6학년 김대현 학생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곤란함, 도농 간의 교육격차 심화의 문제를 이런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변산서중과 변산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앞으로의 어울림 학교의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 학생기자 김규리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활동 (탄소중립실천학교)

지난 10월 28일,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공예인 양말목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다.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모아 뜨개질처럼 떠서 실용적인 냄비 받침대, 가방, 발 매트 등을 만드는 양말목 공예는 실제로 공장에서 버려지던 폐기물을 공예에 활용하게 된 것이라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좋아 각종 취미 생활과 함께 유행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손재주도 키울 수 있는 기회라 좋은 경험이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무척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 학생기자 김단



우리 고장 알아가기

<마실 프로젝트-우리 마을 풍경 아크릴화 제작>

변산서중학교의 노력 중점 교육인 <내 고장 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기르기>는 올해 2021년에도 꾸준히 진행해가고 있다. 이는 내 고장 역사, 문화 유적의 탐사를 통하여 내 고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심성을 기르길 목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



변산서중학교는 마실 프로젝트라는 큰 틀 안에서 <내 고장 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기르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11월 6일 변산서중 학생회의실에서 마실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이 꿈을 꾸고, 깊고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을과 학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성취감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보다 성숙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마을 풍경 아크릴화 제작'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윤호 학생은 "이러한 마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마을에 대한 애향심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탐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 다음 활동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며 다음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약했다.

■ 학생기자 김규리

재미와 감동의 조합 <서연 축제>

지난 10월 29일 변산서중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제18회 서연축제가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서연축제는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오전에는 부스 운영으로 젤리 향초 만들기 및 VR 체험, 치약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반별무대, 락밴드, 우쿨렐레·바이올린 연주, 댄스, 싱잉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 강당에선 1년 가까이 학생들이 만들어온 꿈과 희망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자라남을 알려주었다.

마지막 서연축제를 체험한 3학년 졸업반 이은경 학생은 “마지막 축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무대 올라가야 하고 학부모님들이 운영하시는 ‘엄마의 사랑 한 입’도 진행하지 못해 정말 아쉬웠습니다.”라며 코로나19와 함께한 이번 서연축제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다만 마지막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여 후회 없이 마무리해 뿌듯하고 즐거웠다.”라며 이번 축제가 아쉬움과 즐거움이 넘나드는 마지막 서연축제라 자평했다.

■ 학생기자 이수빈



축제 한 꼭지 - VR 체험

10월 29일, 변산서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퍼졌다. 변산서중의 축제인 서연축제의 장이 열린 것이다. 그중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VR 체험 부스이다.

VR 체험 부스는 외부에서 VR 체험을 할 수 있는 트럭을 빌려 운영했다. VR 체험에는 만리장성, 롤러코스터 등 여러 가지 영상이 있었으며, 그 중, 메인 영상이 되는 스릴이 넘치는 만리장성 영상과 두 번 이상 타는 친구들을 위해 롤러코스터와 같은 영상들이 학생들의 축제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번 VR 체험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래 시대에 더욱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평소에 접하기 힘든 활동들을 체험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등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VR 체험 활동을 했던 3학년 김시우 학생은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VR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드러냈다. 또, VR 체험을 경험한 김가은 학생은 “VR 체험은 TV나 작은 폰으로 보는 세계의 그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이든 구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가진 VR은 나의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가능케 하였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VR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며 VR 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드러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VR 체험 활동을 통해 바뀌어가는 시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미래에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한다.

■ 학생기자 김태규



책 읽는 습관의 시작

변산서중학교에서는 학기초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아침 독서활동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시상해왔다.

아침에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에게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간식거리를 주시기도 했고 매달 출석 횟수가 많은 학생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이 출석한 학생 중 한 명인 1학년 안대현 학생은 “평소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아침 등교시간에 일찍 도서관을 개방하여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하는 책을 찾아 읽을 것이다.”라고 하며 아침독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아침 독서활동은 아침 일찍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다.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 지적인 서중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학생기자 안강현



기쁨을 주는 소원나무

요즘처럼 각박하고 싸늘한 세상, 학생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일 따뜻한 이벤트가 찾아왔다. 바로 ‘소원나무’이다. 매년 한 학기에 두 번씩 진행되는 변산서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인 ‘소원나무’는 중앙 현관에 있는 나무에 가족이나 친구 혹은 선생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누구든지 필요한 물건을 자신의 사연과 함께 적어 나무에 달면 담당 선생님께서 진심이 느껴지는 소원을 채택해 사연을 소개하며 선물과 함께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소원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를 지켜보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도 한다.

변산서중학교 3학년 이수빈 학생은 “이 소원나무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들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소원나무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소원나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드러냈다.

학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같은 존재인 ‘소원나무’가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지속되기를 바라본다.

■ 학생기자 곽경혜



코딩을 신나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AI 체험

다양한 층위의 AI역량이 다방면에서 요구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력 함양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변산서중학교는 AI 선도 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중 지난 11월 13일 토요일, 변산서중에서 컴퓨터 부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AI 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체험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체험으로 변산서중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코딩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는 무엇인지 등을 알려 주었고, 코딩을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종하는 체험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한 2학년 이준호 학생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코딩 실력을 늘릴 수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스스로 일을 해낼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자신의 소감을 말해주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AI 체험’이라는 이름과 맞게 학생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배운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가르친 아이들은 가르치는 능력을 얻어 더욱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이로 자라나 주었으면 한다. ■학생기자 최강호

무주태권도원에서 나의 꿈을 찾자! (진로체험)

2021년 11월 5일, 변산서중학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해 무주태권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변산서중 학생들은 무주태권도원에서 춘향전을 재해석한 연극을 보기도 하고, 태권도의 발차기나 지르기 등의 간단한 동작을 최신 기기로 체험하기도 하며, 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했다.



진로 체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다양한 학생이 적성을 찾게 도와주기 위해 태권도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VR 등의 다른 진로도 다양히 체험할 수 있어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변산서중학교 학생들은 이번 무주태권도원에서 자신의 적성과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꿈을 위해 항상 나아가려는 멋진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학생들의 미래가 긍정적인 행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기자 이성연

온라인 코딩파티로 우리 모두 코딩 마스터!

2021년 10월 12일 변산서중학교 일부 학생들이 방과 후 컴퓨터실을 방문했다. ‘온라인 코딩 파티’라는 코딩 꿈나무를 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매년 두 번씩 열리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하며, 여러 학교나 기업에서 참여하는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

온라인 코딩파티엔 코딩 외에도 컴퓨팅 사고력이나 AI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자가 가장 익숙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코딩 프로그램도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코딩파티에 참여한 2학년 정경훈 학생은 “직접 코딩하고, 조종하며 기술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학생기자 최병훈

직업 체험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진로 (진로체험 <The Art>)



지난 2021년 12월 9일-10일 변산서중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더 아트>를 진행하였다. <더 아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여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활동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였다.

첫날에는 보석 박물관을 방문하여 보석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나만의 팔찌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 애완훈련사 활동을 강사님의 인도 아래 동물과 직접 교감하며 교육을 진행하였다.

둘째 날에는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바다의 웅장함을 느끼며 해양생물과 해양과학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여수 아르떼뮤지엄에 방문해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미디어아트를 경험해보았다.

이번 진로체험 <더 아트>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변산서중 3학년 학생들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변산서중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한다. ■학생기자 김가은

클래스 있는 클래식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학교 체육관(드림관)에서 음악 선생님인 나향탁 선생님께서 시험으로 고생한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힐링을 선물했다고 한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2021 해설이 있는 즐거운 클래식 콘서트’라는 주제로 네 명의 음악 전공자가 시골에 위치한 학교를 돌며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엄마야 누나야> 외 총 8곡을 학생들에게 불러주며 해설자가 학생들에게 곡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1학년 최수아 학생은 “공연 중 인형의 노래 부분에서 인형과 흡사하게 구연해 몰입도가 높았고, <미술피리> 중 파파게노와 파파게니의 이중창에서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으며, 소프라노는 ‘피꼬리’, 바리톤은 ‘무겁다.’라는 느낌이 각각 들었고, 목소리가 어찌면 악기보다 더 아름다운 악기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해왔다.



시골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음악 교과서로만 배우던 곡과 그 외에도 많은 클래식 곡들을 전공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음악적인 소양이 더 성장하게 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학생기자 오다경

4H -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그대에게

우리 학교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 4H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4H 동아리 회장 정성영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동아리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지(智) 덕(德) 노(勞) 체(體) 이념을 가진 청소년 단체로 학생들이 창조적인 세대로 성장해 지역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학회 청소년 교육을 하는 운동이자 네잎클로버를 상징하여 4H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Q. 2021년도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A. 학교가 끝나고 4H동아리 부원들이 모여서 화분 심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손으로 직접 흙에다가 화분을 옮겨 심으니 재미도 있고, 학교를 한층 더 화사하게 꾸며가는 기분이라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조룡 선생님께서 꽃과 식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 학생기자 김태규



방송부 - 〈오후의 희망음악〉과 함께

우리의 오후를 책임지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 방송부에 대해 방송부 회장 3학년 김보람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방송부 진행 프로그램 중 왜 이름이 '오후의 희망음악' 인지?

A. 방송부는 지금 김두용 교장 선생님이 처음 개설하시고 손민재 선생님과 정성룡 선생님 그리고 안재현 선생님까지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름의 뜻은 말그대로 공부와 자기의 진로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들을 위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열심히 오후까지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잠시라도 우리의 방송을 듣고 희망을 얻고, 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열심히 살길 바라면서 '오후의 희망음악'이라 지었습니다.

Q.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

A.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보이는 라디오인 것 같습니다. 방송부의 주요 행사라고 할 만큼 우리 방송부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이고, 열정과 시간 등을 제일 많이 쏟아부어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방송부의 오랜 전통이 끝나도 우리는 다시 새롭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그리고 관심 바랍니다.

■ 학생기자 정성영



가온누리

가온누리는 우리 학교 동아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동아리이다. 올해 동아리 회장을 맡은 3학년 이은경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Q. 우리 동아리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A. '가온누리'는 순우리말인 가온과 누리가 결합된 말로 온 세상에 중심이 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Q. 2021년도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A. 11월 13일에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태조 이성계 어진 원본 관람과 한옥마을 내부에 있는 향교와 장현식 고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실제 옛 왕의 어진을 원본으로 보고, 향교와 장현식 고택을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 마치 머나먼 옛날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올해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 학생기자 최다운

과학발전소 - '그'와 함께하는 과학

과학발전소는 동아리 회장 3학년 김지우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Q. 동아리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저희 과학 동아리의 이름은 과학발전소로 동아리원 전체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고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Q. 2021년도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A. 드론 프로젝트로 총 5~6주 동안 진행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항공대 대학생분들께서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저희 과학발전소 부원들에게 드론 조종법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사항, UAM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드론에 대해 더 알고,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 학생기자 이은경

농구동아리 TOP-10 - 너와 내가 모이면 탑텐

우리 학교 유일의 농구동아리 TOP-10은 동아리 회장 3학년 김시우 학생의 인터뷰로 소개하고자 한다.



Q. 동아리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TOP-10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10명의 동아리원들이 변산서중학교에서 농구를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농구부의 포부가 담겨있습니다.

Q. 2021년도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A. 아쉽게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농구 경기 등 여러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동아리원들과 아쉬움을 달래고자 동아리 내에서 진행되었던 농구 경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 학생기자 이서현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학습, 책가방



11월 2일, 변산서중학교에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학습 ‘책가방’을 실시하였다.

책가방 프로그램은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독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함과 대화소설인 <혼불>의 배경을 통해 우리 문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학적인 상상력과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실행되었다.

혼불문학관, 지리산 허브밸리, 광한루원, 승마체험 등의 장소를 돌아다니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체험을 진행하였다.

책가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미화 학부모는, “11월 2일 진행한 책가방 남원 문학기행은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과 맑고 푸른 하늘을 벗 삼아서 변산서중·격포초·변산초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혼불문학관에서 故 최명희 작가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고 나누는 기쁨은 값진 시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변산서중 자녀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책가방 나들이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라며 자신의 즐거웠던 기억과 함께 다음을 기약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책가방과 같은 활동이 계속되어 학부모와 교사, 더 나아가 학생들도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 학생기자 이은경

<말랑한 벽>의 송태규 시인을 만나다. (교육 공동체를 아우르는 서대(書對)공감)



지난 9월 28일 변산서중학교에선 말랑말랑한 온기가 학교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 이유는 일상에서 건져 올린 시어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노래하는 저자 <말랑한 벽>의 송태규 시인을 초빙하여 만남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저자와의 만남>은 변산초, 격포초, 변산서중 3개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저자와의 만남>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송태규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붙잡기 힘든 마음과 감정들을 시를 읽으며 깊고 섬세하게 느꼈고, 한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저자와의 만남>에 참여한 김소희 학부모는 “아이들만 키우다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평소에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찾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서대공감의 <저자와의 만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대공감을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학생기자 김가은

두드림으로 dream을 실현하다 (속 시원한 난타 동아리 DO DREAM)

2021년 9월 16일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난타동아리 DO DREAM이 첫발을 내딛었다. 어울림학교의 일환으로 학부모님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매주 7, 8교시를 활용해 동아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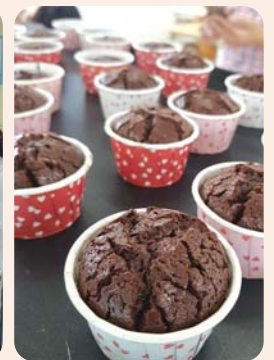
학부모들은 초빙된 난타 전문가의 인도에 따라 박자에 맞춰 난타를 두드리며 평소 지니고 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난타를 통한 타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장점들로 난타 동아리는 날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하며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변산서중학교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 학생기자 정진주

달콤한 레시피 ‘사랑빵’ (제과제빵 교실)

변산서중학교는 어울림학교, 다문화정책학교로 지정되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6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6회기에 걸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교육인 ‘사랑빵’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취미와 특기를 살리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쿠키, 콘치즈 스콘, 브라우니 등 각종 빵들을 조리했으며 매 회기마다 학부모들의 제과제빵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어려운 제빵 기술을 습득하는 등 그 실력을 쌓아갔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걱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 학생기자 최윤호

학부모회 마실길 동아리 <뚜벅이>



지난 6월 22일, 학부모회 마실길 동아리인 ‘뚜벅이’가 첫 활동을 진행하였다.

개암사 등산로를 교장 선생님, 김덕중 선생님과 함께 걸으며 학교 이야기, 자녀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누었다고 한다. 참여하신 임미화 학부모는 “학부모 각자 생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번 나오면 또 나오고 싶고 계속해서 나오고 싶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같이 희망도 얻어가는 것 같아 좋다. 또 열심히 살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자는 다짐을 하게 된다. 학교에 고맙다.”라며 그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 학생기자 김 단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 아침에는 따뜻한 미소와 햄버거를



11월 17일, 학생회가 학생들의 하루의 시작을 반겨주는 아침 등교맞이의 첫 장을 열게 되었다. 아침 등교맞이를 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통한 학교폭력이 없는 밝은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캠페인을 동반했다. 또한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금연 캠페인 등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는 아침밥을 거르는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햄버거와 음료를 함께 제공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학생기자 김하은

보다 보람 있는 독서, 독서 골든벨

6월 24일, 학생회가 주최하여 독서 골든벨을 실시했다. 독서 골든벨은 학생회에서 각 학년에 맞게 지정해준 책을 읽고, 출제자의 문제를 학생들이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각 학년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각각 <유진과 유진>, <구명난 기억>, <우아한 거짓말> 등의 지정독서를 읽고 퀴즈를 풀었다.



독서 골든벨은 학생회가 직접 주최했기에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승부욕을 돋우기 위한 상품도 푸짐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독서 골든벨은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향상하며, 책과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책에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독서 골든벨에 참가한 황현지 학생은 “평소 독서가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기회를 통해서 독서가 보다 쉽게 다가온 것 같아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라며 독서 골든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독서 골든벨을 기획한 3학년 김가는 학생은 “이번 독서 골든벨을 계기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책에 대한 관심이 향상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변산서중 학생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드러냈다.

■학생기자 정예린



리더로서 리드하라! (학생회 리더십 캠프)

지난 2021년 9월 18일 변산서중학교 학생회의실에서 2021년 학생회 임원(학생회장 김하은 외 15명)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 리더십 캠프의 목적은 학교를 이끄는 학생 리더들에게 리더의 명확한 역할과 관심, 존중, 인정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시간에는 학생회 임원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강의를 진행되었고 두 번째 시간은 앞으로 학생자치회를 이끌고 리더의 역할을 실천해줄 학생회 임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예술체험으로 스톤캔들 만들기 진행하였다.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회 총무부 이은경 학생은 “학교와 학교의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학생 리더로서 리더십과 관련된 지식, 경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리더십 캠프를 진행해 주어 정말 좋았다. 우리 학교의 학생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성장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리더십 캠프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학생기자 김가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 자치회 (학생 자치회 환경부 활동 <탄소중립실천 표어 창작 대회>)

여러 환경 문제가 빚발치고 있는 요즘 변산서중 학생 자치회의 환경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일깨워 줄까 하는 고민을 하다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일에 걸쳐 <탄소중립실천 표어 창작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증진시키고 현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학생들이 표어를 창작하여 쉽고 빠른 접근이 가능한 SNS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3학년 최다운 학생은 “이 탄소중립실천 표어 행사는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다가가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준 행사였다.”라며 이번 행사의 인터뷰에 응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변산서중 학생들은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가며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기자 정성영

2021년 매창 백일장 대회 - 운문

솔섬에 가면

김 지 선

솔섬에 가면
할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핀다.

여든하고 일곱 살
양동이 속에
바지락이 넘실넘실
춤을 춘다.

솔섬에 가면
내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핀다.

열 하고 네 살
군침 도는 바지락죽
뽕얀 국물의 바지락탕
내 어깨가 들썩인다.

행복한 미소로 교단을 떠나려 합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 해님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행복한 교직 생활을 마무리 하고 떠나려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실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변산서중.

해맑은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 농어촌 작은 시골 마을 동네 한 바퀴 담소 나누며 걷던 마실길의 정겨움이 고스란히 베여 있는 따뜻한 학교를 뒤로하고 정든 교정을 떠납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교단에 선지 어느덧 삼십여 년, 긴 세월 속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조용히 훌га분한 마음으로 물러갑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모두가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평교사에서 교장의 자리까지 함께해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지난 교직 생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숲과 나무, 새와 곤충을 친구 삼고, 물과 바람과 하늘을 벗 삼아, 인생 이모작의 생태적 삶을 꿈꾸려 합니다. 이 길 위에 사랑과 소망의 새싹을 심으려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꿈을 꿈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를 향한 꿈을 꿈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있으며 그 꿈의 바다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꿈은 자신의 소중한 미래이며, 앞날에 대한 목표가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신 선생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주신 학생, 학부모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했던 교단생활의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개학 없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혹 그동안 저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마음에 상처를 끼쳐드린 교육 가족이 있다면 부덕한 저의 허물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변산서중이라는 테두리에서 한데 어우러진 시간 속에 동행해준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졸업한 제자님들 가정에 행복과 기쁨 충만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

2021년 12월 20일

변산서중 교장 김두용 드림

2021 학년도 겨울방학 학생생활 안내

방학동안 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 ① 모든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② 방학 중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 ③ 개학 1주 전부터 자가진단을 반드시 완료하고 등교합니다.

※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 임상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있을 시 **부안군보건소(☎ 584-1261)나 1339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

- ④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학생생활 지도안내

가. 지도일자

- 1) 연말 : 2021년 12월 24일(금) ~ 12월 31일(금) 10:00 ~ 17:00
- 2) 졸업식 이후 : 2022년 2월 14일(월) 10:00 ~ 17:00
- 3) 지도지역 : 변산면 일원(우리학교 학구 내) : 지서리, 격포 터미널 일원, 상가 지역, 소노벨 변산, 바다호텔 인근 등

학사일정 안내

- | | |
|------------------------------------|---|
| 가. 방학일 : 21년 12월 24일(금) | 나. 방학기간 : 21년 12월 25일(토) ~ 22년 2월 2일(수) (40일) |
| 다. 개학일 : 22년 2월 3일(목) | 라. 졸업식 : 22년 2월 10일(목) |
| 마. 종업식 : 22년 2월 11일(금) | 바. 학년말 방학 : 22년 2월 12일(토) ~ 2월 28일(월) |
| 사. 신입생 OT : 22년 2월 22일(화) ~ 23일(수) | 아. 개학식 : 2022년 3월 2일(수) |